

면

O V E R T H E V E N T U R E

희망의 길로 전진하는 벤처

글 _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저 벤처기업협회가 창립 10주년을 맞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벤처기업협회 임직원들을 포함한 벤처기업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는 벤처관련 단체가 하나도 없던 1995년 12월에 창립하여, 1997년 벤처기업 육성의 기본정책수단이 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과 2000년 체계적인 기술거래기반 조성을 위한 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 등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험실 공장 창업의 허용, 스톡옵션제도의 도입 등에도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책적 건의를 하는 등 정부와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벤처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부턴 '벤처 Again'이라는 운동을 확산시켰으며, 벤처업계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나눔의 문화 확산운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협회는 건전한 벤처 생태계의 구축과 벤처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벤처 기업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소득 2만불 시대의 달성,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문제의 해결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2001년 이후 침체된 벤처기업 재도약을 위해 정부는 협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라톤 회의를 통해 작년 12월에 범정부적인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의 착실한 추진과 더불어 다시 한번 재도약하려는 벤처기업인들의 열정과 의지로 인해 최근 우리 벤처업계의 역동성은 회복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벤처기업 수가 10월 말 현재 9322개로 작년 말에 비해 17% 증가하였고, 코스닥 지수도 작년 말 375포인트에서 올해 12월 2일 현재 734포인트로 96%나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현재 우리 벤처업계는 앤드류 그로브

인텔 前 회장이 이야기한 '비즈니스의 근본이 변하는 시기(a time in the life of a business when its fundamentals are about to change)'인 '전략적 변곡점(Strategic Inflection Point)'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벤처열풍이 불면서 1999년 전후에 벤처업계는 첫 번째 전략적 변곡점을 맞아 큰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2001년에 벤처업계의 옥석 구분과정을 겪으면서 두 번째 전략적 변곡점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작년 12월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을 계기로 우리 벤처기업은 재도약을 위한 세 번째 전략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벤처기업들은 경쟁력 강화와 함께 '윤리·투명경영'의 노력을 배가해서 재도약의 불씨를 더욱 키워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르네상스기(期)를 대표하는 철학자이며 수사학의 저자인 몽테뉴는 그의 저서 《사색의 광장》에서 인생의 '행복'과 '고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평화와 행복만으로 살 수 없으며, 고난이 필요하다.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인생의 희망은 늘 고난이라는 언덕길, 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

협회는 벤처기업과 함께 과거 10년간 평화와 행복 외에 시련과 고통을 같이 겪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10년간 협회는 벤처업계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벤처기업과 함께 수립하여, 시련의 언덕을 넘어 희망의 길로 전진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부에서도 벤처기업의 재도약과 성장에 걸림돌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